

섭리/더하기/섭리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아 헤멤

- 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랏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 2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것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 3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 4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살살이 찾아 보았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알림 지역에 가 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 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5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 나섬

- 6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 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 7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루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 8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 9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 10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 11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 12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가셨으니 서둘러 가 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 13 그분이 음식 잡수시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이니 성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 14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3 묵상하기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일상적인 심부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3절). 그리고 우연처럼 연결되는 상황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사울은 생각지도 못하게 사무엘에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연 같지만 필연인 하나님의 계획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나의 작은 걸음과 만남과 일상을 돌아보는 어느 날, 마치 퍼즐이 완성되듯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상에 의미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일상이 모여 완성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가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때로는 의미 없게 느껴지는 소소한 일상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할 소소한 일은 무엇인가요?
- ②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임을 간증할 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겸손히 따라가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 10**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 11**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 12**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가셨으니 서둘러 가 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 13** 그분이 음식 잡수시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이니 성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 14**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 궁금 사전

***선견자**: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전하는 사람

***산당**:높은 곳에 세운 예배드리는 장소, 신전

• 말씀 씨앗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로 갔을 때 물 길으러 나온 소녀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사울은 소녀들의 말을 듣고 성으로 올라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고 인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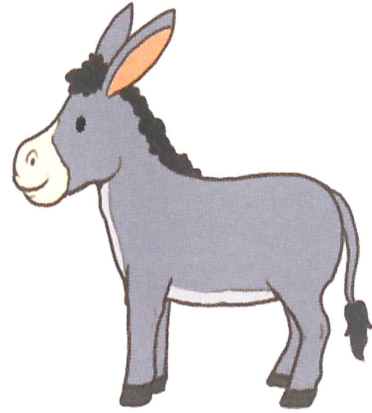
3 말씀새싹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나요?(14절)

① 종

② 소년들

③ 천사

④ 사무엘



4 말씀열매 - 그림을 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숨은그림찾기: 별, 시계, 자판이, 종, 왕관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5 기도하기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